

줄어드는 종교 인구,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을 중심으로¹

구 현 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줄어드는 개신교인 비율, 떨어지는 교회 호감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하 한국갤럽)에서 지난 5월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은 종교계 전반과 한국교회가 외면하던 현실을 드러내었다. 급격하게 하락한 종교인의 비율, 특히 개신교인의 비율은 그동안 막연하게만 존재하던 한국교회 위기설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었다.² 1984년부터 2014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개신

1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은 전국 만 19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18일~4월 7일에 제주 제외 전국에서 면접조사원 설문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표본 오차는 $\pm 2.5\%$ 포인트이고 95% 신뢰수준이다. 본 리포트에서 소개되지 않는 조사 결과는 아래 링크들에서 확인 가능하다:

(1) 종교 현황: 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2) 종교에 대한 인식: 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9

2 물론 이번 한국 갤럽의 조사결과가 한국인의 종교성을 충분히 계량화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 갤럽의 기술적, 통계적 신뢰도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종교인의 종교 참여를 비롯한 종교 현상은 과학적으로 수치화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고,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화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전성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언어로만 설명되던 현상을 눈에 보이는 수치로 표현한 한국 갤럽의 조사는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판단, 본 리포트에서는 조사 결과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 이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인의 종교”가 지니는 한계와 해석상 유의점은 이어지는 글 “한국갤럽의 ‘2021년 한국인의 종교 및 종교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소고: 비종교인의 종교성을 중심으로” (유광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인의 비율은 2021년 조사에서 17%로 하락했는데 이는 2014년의 21% 대비 19% (4%p) 낮아진 수치이고 1984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모습이다 (표1 참조).

	개신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	종교 없음
1984년	17%	6%	19%	3%	56%
1989년	19%	7%	21%	2%	51%
1997년	20%	7%	18%	1%	53%
2004년	21%	7%	24%	1%	47%
2014년	21%	7%	22%	1% 미만	50%
2021년	17%	6%	16%	1% 미만	60%

* 표1. 종교 분포 1984-2021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에서 발췌)

한국갤럽은 비종교인의 개신교 호감도 또한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발표했다. 2004년과 2014년에는 종교를 갖지 않고 있는 응답자 중 10% 이상이 개신교에 호감이 있다고 밝혔으나, 2021년에는 6%만이 개신교를 자신의 호감 종교로 꼽았다(표2 참조). 이는 2021년 비종교인의 20%와 13%가 각각 불교와 천주교에 호감이 있다고 밝힌 것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이며 비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 행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개신교 호감	천주교 호감	불교 호감	호감 종교 없음
2004년	12%	17%	37%	33%
2014년	10%	18%	25%	46%
2021년	6%	13%	20%	61%

* 표2. 비종교인의 호감 종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에서 발췌)

사실 이번 한국갤럽의 종교인 비율 감소 발표가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2016년 12월 발표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에서도 같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2015년 당시 인구의 20%를 표본으로 뽑아 조사한 해당 자료에서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 전체의 43.9%를 차지해 종교가 없다고 답한 56.1%보다 적게 나타났고, 이는 전수조사로 실시된 2005 인구주택총조사 때의 52.9% 보다 9%p 낮은 수치였

다.³ 하지만 당시 개신교인 수는 2005년 대비 123만 여명 증가해 전체 인구의 19.7%를 차지했고, 정부에서 인구주택총조사를 시행한 이래 처음으로 불교(15.5%)를 앞지르고 국내 신도 수 1위 종교가 되었었기에 한국교회 위기 담론은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 2010년대 후반 들어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의 교세 통계에서 교인 수 감소가 보고되기 시작했고, 이번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종교 인구 감소의 흐름을 개신교도 비껴가지 못했음이 드러났다.⁴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 감소와 대중의 무관심

한편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 조사는 응답자들의 종교성과 영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구주택총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자료로서도 의미가 크다. 자신이 속하거나 따르는 종교가 무엇인지 만을 단편적으로 묻는 통계청 조사와 달리 한국갤럽은 추가적인 질문들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비종교인의 82%가 종교가 사회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점은 뜻하는 바가 크다(표3 참조). 이에 반해 개신교인의 80%는 여전히 종교가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종교의 영향력과 필요성에 대한 비종교인과 종교인, 특히 비종교인과 개신교인의 이해의 간극이 넓게 벌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또 비종교인의 89%는 종교가 개인 생활에서도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는데, 이를 통해 비종교인의 대다수는 종교의 존재 가치와 역할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4 참조).

	개신교인	천주교인	불교인	비종교인
‘종교가 사회에 도움을 준다.’	80%	65%	59%	18%
‘도움을 주지 않는다.’	20%	35%	31%	82%

* 표3.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에서 발췌)

3 자세한 수치는 국가통계포털 (kosis.kr)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M1502&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docId=0280119395&markType=S&itmNm=%EC%A0%84%EA%B5%AD.

4 그 예로 예장 합동, 통합, 고신, 기장의 2020년 총회에서 각각 3.8%, 1.9%, 2.6%, 5.9%의 교인이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현수, “장로교 목사 늘고 교인 줄었다,” <인천기독교신문> (2020년 10월 19일) iccnews.co.kr/archives/3075.

	‘나의 개인 생활에는 종교가 (매우+어느 정도) 중요하다.’			
	개신교인	천주교인	불교인	비종교인
1984년	97%	97%	88%	48%
1989년	97%	96%	78%	44%
1997년	96%	89%	77%	39%
2004년	90%	82%	68%	29%
2014년	90%	81%	59%	30%
2021년	90%	85%	62%	11%

* 표4. 개인 생활 속 종교의 중요성 1984-2021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에서 발췌)

반면 비종교인의 종교를 향한 부정적 인식이 종교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비종교인의 19%가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때문에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그 2배가 넘는 54%가 단순히 관심이 없어서 종교를 찾지 않는다고 밝혔다(표5 참조). 게다가 관심이 없어 종교를 갖지 않는 비종교인의 비율은 1997년 이래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는 개신교의 입장에서 볼 때, 비종교인들의 종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이유를 분석하고, 대중의 무관심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를 시사한다.

현재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	1997년	2004년	2014년	2021년
관심이 없어서	26%	37%	45%	54%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23%	14%	19%	19%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10%	18%	15%	8%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9%	21%	18%	17%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반대로	4%	2%	1%	1%
용기가 없고 부담이 되어서	4%	2%	2%	1%
기타/응답 거절	14%	6%	0%	0%

* 표5. 비종교인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에서 발췌)

교인들의 교회활동 감소

끝으로 “한국인의 종교” 조사는 개신교인들의 종교 생활의 변화도 짚어내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인 중 주 1회 이상 성경을 읽는 비율과 하루 1회 이상 기도하는 비율은 2014년 대비 각각 14%포인트와 15%포인트 감소하였다(표6, 7 참조). 또한 주 1회 이상 교회에 방문하는 비율은 2014년 80%에서 2021년 57%로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표8 참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수치이지만,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예측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개신교인들의 종교 활동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추세가 뚜렷하다. 물론 성경을 읽는 횟수나 교회 참석 횟수 등이 개인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종교 활동 참여 빈도의 하락세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강조한 내용들에 반하는 것이어서 교회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경/불경 등을 읽는다.’			
	개신교인	천주교인	불교인	종교인 전체
1984년	45%	40%	11%	28%
1989년	50%	39%	8%	29%
1997년	50%	34%	9%	33%
2004년	49%	16%	9%	26%
2014년	56%	39%	11%	34%
2021년	42%	35%	3%	25%

* 표6. 종교인 중 주 1회 이상 경전 독서자 비율 1984-2021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에서 발췌)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기원 한다.’			
	개신교인	천주교인	불교인	종교인 전체
1984년	63%	57%	16%	41%
1989년	68%	58%	14%	42%
1997년	64%	41%	11%	40%
2004년	59%	28%	14%	34%

2014년	52%	30%	8%	29%
2021년	37%	31%	5%	23%

* 표7. 종교인 중 하루 1회 이상 기도/기원자 비율 1984-2021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에서 발췌)

	‘요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당/교회/절에 간다.’			
	개신교인	천주교인	불교인	종교인 전체
1984년	62%	66%	10%	39%
1989년	73%	66%	4%	41%
1997년	72%	60%	1%	42%
2004년	71%	43%	4%	36%
2014년	80%	59%	6%	44%
2021년	57%	42%	1%	32%

* 표8. 종교인 중 주 1회 이상 종교시설 방문자 비율 1984-2021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에서 발췌)

사회학 이론으로 읽기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종교인구 감소는 뚜렷한 현상이고, 개신교도 그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 더불어 비종교인들의 종교에 대한 관심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 사회적 역할을 인정받고 있지도 못하다. 게다가 개신교인들의 종교생활도 활동성과 적극성을 서서히 잃고 있음이 드러났다. 세속화. 일련의 내용들을 나열할 때 많은 이들에게 떠오르는 용어다. 사회과학을 전문적으로 학습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친숙한 이 단어는 에밀 뒤르케임(Emile Durkheim)과 막스 베버(Max Weber) 등의 19세기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처음 등장했다. 그 후 유럽 사회에서 종교가 지니는 영향력 감소를 설명하는데 쓰이던 세속화 이론(Secularization Theory)은 1950년대와 60년대에 발표된 피터 버거(Peter L. Berger)의 초기 저작들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그에 따르면 종교적 가치가 근간이 되던 사회나 집단에서 근대화 등의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면 종교

는 점차 그 영향력을 잃는다고 한다.⁵ 이러한 주장은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감소를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기에, 피터 버거 이후에도 널리 알려져 사용되어 왔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가 세속화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근대화의 결과로 세속화되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제시하자면, 한국 사회의 상황이 전통적 세속화 이론의 예시로 이해되는 것은 어렵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이 사회를 지배하던 유럽과는 달리 한국은 다양한 종교 전통이 공존하던 사회였다. 따라서 근대화가 종교의 입지를 위협한다는 단순한 도식은 한국 상황에 대입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실제로 19세기 기독교 선교사들의 도래 이후 한국은 다종교 사회의 모습을 이어 왔고, 1960년대 이후로는 전통적 세속화 이론의 주장과는 반대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이 종교의 성장과 함께 해왔다. 한국의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신도 수와 영향력을 잃은 종교 전통도 존재하지만, 개신교처럼 경제 발전과 함께 성장한 종교들이 많았다. 쇠퇴한 종교 기관들의 자리를 메우는 새로운 공동체들이 끊임없이 등장했고, 참여하는 인원은 적어도 그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집단들도 있어왔다. 따라서 이는 1990년대 들어 자신의 초기 주장을 번복한 버거의 세속화 이론 비판과도 맥을 같이한다.⁶ 그의 말대로 종교와 근대화의 관계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성질의 것이고, 한국 사회는 19세기의 서구권 사회학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존재해서, 2010년 이후 두드러진 한국의 종교인구 감소도 단순한 세속화의 진행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로 대표되는 세속화 이론의 반대론자들도 종교 인구의 감소가 세속화의 증거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사회의 근대화가 진행되어도 종교는 힘을 잃지 않는다.⁷ 그들은 설령 그 사회를 지배하던 전통적 형태의 종교의 외연이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더라도, 종교는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그 영향력을 유지 혹은 확대한다고 주장한다.⁸ 이는 한국 교회 나아가 종교계 전체에 희망을 준다. 비록 한국교회

5 Peter L. Berger, *The Sacred Canopy: Elements of a Sociological Theory of Religion* (Garden City, NY: Doubleday 1967), 105-26.

6 Peter L. Berger, "The Desecularization of the World: A Global Overview," in *The Desecularization of the World: Resurgent Religion and World Politics*, ed. Peter L. Berger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1999), 2-4.

7 Charles Taylor, *A Secular Age* (Cambridge, MA: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1-24.

8 Ibid.

가 직면하고 있는 부정적인 수치들, 즉 교인의 감소, 비종교인들의 무관심, 그리고 개신교인들의 적극성 결여 등이 비록 종교와 교회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설문 문항으로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모습의 종교성과 종교영향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근대화와 경제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전근대적 사회에서 강세였던 전통적인 모습의 종교 활동과 종교기관은 힘을 잃어도 새로운 사회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모습의 운동과 공동체들은 발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은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답을 제공한다.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와 로저 핀케(Roger Finke)는 인간에게는 지속적인 종교적 혹은 영적 욕구가 있고, 종교가 그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영향력을 잃지 않는다고 주장한다.⁹ 어떤 재화를 구매할지를 소비의 합리성에 기인하여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일반적 모습처럼, 종교 구매자들도 종교를 갖을지 여부와 어떤 종교에게 향할지를 합리적으로 선택한다.¹⁰ 바꾸어 말하면, 어떤 종교 단체나 기관이 사회적 영향력을 잃고 있다면, 해당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신도 수 감소, 비종교인들의 무관심 등의 현상도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종교의 모습이 있는데, 개신교회는 그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교회가 사회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해서일 수도 혹은 오늘 사회와 대중이 바라는 종교의 모습이 기독교적 신념과 맞지 않는다며 그 요구를 외면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물론 대중이 바라는 모습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적 책임과 반할 수 있다. 옳고 그름의 판단 없이, 또 윤리적 고찰 없이 대중의 기호에 맞는 서비스만 제공했을 때의 위험성도 분명 조재한다. 하지만 교회가 오랜 세월 지켜온 신앙적 가치를 현 시대에 맞는 언어로 번역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으로 제공한다면 보다 많은 이들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긍정할 여지가 크다.

나 가 며

이번 한국갤럽의 조사를 비롯한 숫자들은 우리에게 탈종교화의 시대의 도래와 교회도 그 흐름에서 비껴갈 수 없음을 알린다. 일부에서는 어두운 현실을 부정하고, 다른 한쪽에서

9 Rodney Stark and Roger Finke, Acts of Faith: Explaining the Human Side of Relig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193-217.

10 Ibid.

는 사회적 현상을 거스를 수 없다며 선교적 무기력증 증세를 보인다. 하지만 현 상황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은 교회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탈종교와 탈교회 현상은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종교가 설 자리가 없고 대안이 없는 온전한 세속화의 도래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교회가 이미 힘을 잃고 있는 전통적 형태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테일러와 스타크, 핀케가 말하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로서 그 영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